

내년 수시 선발 전남대 75%·조선대 94%

지역인재 특별전형 81곳 1만987명...논술전형 29곳

대교협 2018 수시 요강 발표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논술로 뽑는 인원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수시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75.4%, 94%를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19일 발표한 '2018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 자료를 보면 올해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74.0%인 25만8920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이중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2만3712명이다. 지난해 선발 인원인 21만1762명보다 11950명(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생

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4만1599명으로 지난해 13만8995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지난해 7만2767명에서 8만3553명으로 증가했다.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고른기회전형은 선발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2611명 증가했다. 지난해 3만6044명(정원내 1만4924명, 정원외 2만1120명)에서 올해 3만8655명(정원내 1만6680명, 정원외 2만1975명)으로 늘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은 81개교로 지난해에 비해 한 곳이 늘었다. 인원도 971명이 늘어 총 모집인원의 4.2%인 1만987명을 차지했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 수시모집 인원별로는 목포대(1264명)·목포해양대(544

명)·순천대(1388명)·전남대(3228명, 75.4%)·광주가톨릭대(24명)·광주대(1638명, 94%)·광주여대(901명)·남부대(752명)·동신대(1507명, 92.3%)·목포가톨릭대(112명)·송원대(760명)·조선대(3697명, 79%)·조당대(752명)·호남신학대(118명)·광주교대(235명)·광주과학기술원(180명) 등이다.

이들 대학 중 전남대는 모집인원의 75.4%를 뽑는다. 조선대(94%)·동신대(92.3%)·광주대(94%) 등이다.

반면 논술전형의 경우 실시하는 대학은 28개교에서 29개교로 늘었음에도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728명이 감소해 1만2961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6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 산업대(청운대, 호원

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찰대학 등은 지원횟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수시에서 복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다. 전형 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2월 15일까지 발표된다. 원서접수 후 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수험생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대한 정보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남구 칠석동 800살 은행나무 살리기大作전

높이 25m 광주시 기념물 10호
구경, 예산 1천800만원 투입
상처 치료하고 지지대 보수

고싸움 놀이로 유명한 광주 남구 칠석동 숲마을에 어귀 들판에 있는 수령 800년 된 은행나무가 외과수술을 받는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예산 1800만원을 들여 '할머니 당산'이라고 부르는 800년 된 은행나무 살리기에 나선다.

주민들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 전날 상·하촌으로 패를 나눠 고싸움놀이 하기에 앞서 할머니 당산과 뒷산 할아버지 당산 소나무를 찾아 제를 지내고 있다.

높이 25m가량에 전체 둘레가 13m에 달하는 칠석동 은행나무는 수령(樹齡)이 800여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광주시 기념물 10호다.



“할머니 당산나무 건강하세요” 광주 남구 칠석동 은행나무(광주시 기념물 10호)가 수술을 받는다. 높이 25m, 전체 둘레 13m에 달하는 은행나무의 수령(樹齡)은 800년으로 추정된다. /최현배기자 choi@

은행나무는 현재 밑둥치부터 곧게 뻗은 원줄기에서 생겨난 상처를 치료했던 자리가 다시 썩으면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래전 반쳐졌던 철제 지지대도 줄기를 파고들면서 수분과 영양분이 흐르는 통로마저 막혀있는 상태다.

남구는 병들어가는 할머니 당산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한편 전문업체를 통해 살균, 살충, 방수, 방부 등 약제 처리와 인공 껍질 부착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나무 살갓을 파고든 '쇠자광이'는 부드러운 재질로 바꾸고 지지대를 설치했던 위치도 건강 상태에 맞게 새로 조정한다.

광주에는 현재 느티나무·왕버들·은행 등 11종 77주의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남구 '평화의 소녀상' 양림동 펭귄마을에 건립

광주 남구가 건립을 추진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양림동 펭귄마을 입구에 들어선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 건

립추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건립 부지 안을 정하고 기금모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양림동이 호남 독립운동의 거

점이자 광주 NGO 운동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새겨 건립 부지를 펭귄마을 입구로 확정했다.

추진위는 건립비 마련을 위해 오는 27일 대촌동 구산수목원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3 몰림 02:15
해질 19:45 달질 16:26

자외선에 의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25/34 | 보성 | 구름맑음 | 23/33 |
| 목포 | 25/32 | 순천 | 구름맑음 | 26/33 |
| 여수 | 26/32 | 영광 | 구름맑음 | 24/33 |
| 나주 | 24/33 | 진도 | 구름맑음 | 25/33 |
| 완도 | 25/33 | 전주 | 가름흐리고비 | 25/32 |
| 구례 | 23/34 | 군산 | 구름맑음 | 24/31 |
| 강진 | 24/33 | 남원 | 가름흐리고비 | 24/33 |
| 해남 | 24/33 | 홍산도 | 구름맑음 | 23/29 |
| 장성 | 구름맑음 | | | 23/32 |

◇바다 날씨

| | 오전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앞바다 | 남~남서 | 0.5 | 남~남서 | 0.5 |
|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0.5~1.0 | 남~남서 | 0.5~1.0 |
| 남해 앞바다 | 남서~서 | 0.5 | 남서~서 | 0.5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남서~서 | 0.5~1.0 | 남서~서 | 0.5~1.0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남서~서 | 1.0~1.5 | 남서~서 | 1.0~1.5 |

◇물때

| 목포 | 밀물 | 썰물 |
|----|-------|-------|
| | 04:21 | 10:50 |
| | 16:35 | 23:54 |
| 여수 | 밀물 | 썰물 |
| | 12:12 | 06:03 |
| | --:-- | 18:55 |

◇주간 날씨

| 21(금) | 22(토) | 23(일) | 24(월) | 25(화) | 26(수) | 27(목) |
|-------|-------|-------|-------|-------|-------|-------|
| ☀ | ☀ | ☀ | ☁ | ☀ | ☀ | ☀ |
| 26/34 | 26/34 | 26/33 | 26/33 | 25/33 | 25/33 | 24/33 |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역파도 예보

기상청 4→8곳 예보 확대 해수욕장이다.

역파도라고도 불리는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한 곳으로 밀려들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먼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안류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 내 해양지수정보(www.kma.go.kr/weather/images/marine_index_icing.jsp)를 통해 알 수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해경 절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조사 57% 달해...최고 충격 '세월호 참사' 꼽아

해양경찰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월호 사고를 가장 큰 충격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해경본부가 지난해 3월 실시한 '해양경찰 PTSD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6190명 중 3386명(54.7%)이 PTSD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06명(37.3%)은 완전한 PTSD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080명(17.4%)은 부분적인 PTSD 진단이 내려졌다.

전체 조사 대상자 7007명 중 번사체나 본인 상해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827명으로 54.6%에 달했다.

이 중 3029명(79.1%)이 경험 시기를 '입사 후'라고 답해 대부분 직무 수행과 정에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충격사건의 종류를 묻는 말에 '세월호(참사)'라고 답한 사람(복수응답)이 12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번사체 863명, 본인 상해 687명, 중국 여선 661명, 조직 내부 619명, 동료 상해 576명 등의 순이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해경이 충격사건에 노출된 평균 횟수는 6.6회였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외에도 해양사고 대응, 번사체 처리, 항공구조 등 여러 가지 고위험 임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해경본부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기념 제3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7년 8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5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 · 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 · 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 광주광역시 동구